

INTERNI

& Decor

Special Series
The Evolving House_방(1)

공간, 우주로 가다

2021 욕실 도기 제품 경향
2021 국내외 조명 경향

다시, 오피스

SEPTEMBER, 2021



우수콘텐츠잡지
2021

The Evolving House

취재 한성옥, 이상진

구조의 다변화

PART 3-1. 방

room

Living room

kitchen

veranda

bathroom

버지니아 올프는 수필 <자기만의 방>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은 단순히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쉬는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방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듬고 마음껏 꿈꿀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방이 과연 그런 공간일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일은 다를지언정 틀은 비슷한 방에서 살아왔다. 한쪽에는 문, 한쪽에는 외부로 향한 창이 있으며 두터운 벽을 따라 침대, 옷장 등의 가구가 배치된 모습. 때때로 가구를 옮겨 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변화는 어렵다. 진정한 나만의 방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공식 같은 방인 것이다. 그러나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명료한 현대인은 이제 방을 바꿔 나가고 있다. 먼저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조를 영민하게 재편해 수납공간을 확보하거나 실용적인 동선을 구축한다. 생활 패턴에 따라 휴식에 집중하고자 방을 동굴처럼 구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은 방에 여러 기능을 부여하거나 주거 내 다른 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을 탄생시킨다. 실내 구획에서 좀 더 자유로운 1인 주거의 경우 유리 벽체, 박스 등 신선한 방식을 활용해 공간을 재정의한다. 다인 주거에서도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거나 문 외의 통로를 만들어 유연한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방과 다른 구역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고정관념을 깨고 거주자에 맞춰 구조를 다변화한 방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때때로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듯 방 안에 담기는 삶도 변화한다. 일상이 좀 더 편리해지고 휴식은 한결 아늑해지며 여가 시간도 훨씬 풍요로워진다. 무엇보다도 한계를 깬 틀이 삶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한다. 거주자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토대가 될 자유로운 구조의 방을 만나보자.



현관 영역을 주방으로 활용했다.

나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방 EQUADOR 201

Design / DC.AD · Duarte Caldas
 Location / Cascais, Portugal
 Area / 38m²
 Photograph / DC.AD, Francisco Nogueira

How to Design 침실과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회전형 패널을 설치해 유연하게 연결했다.



복도가 시작되는 벽에 전면 거울을 설치해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했다.



복도에 식탁을 두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오늘토돌한 질감이 살아있는 모르타르 벽이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이룬다.



희고 깨끗한 면을 지닌 가구가 인더스트리얼 무드와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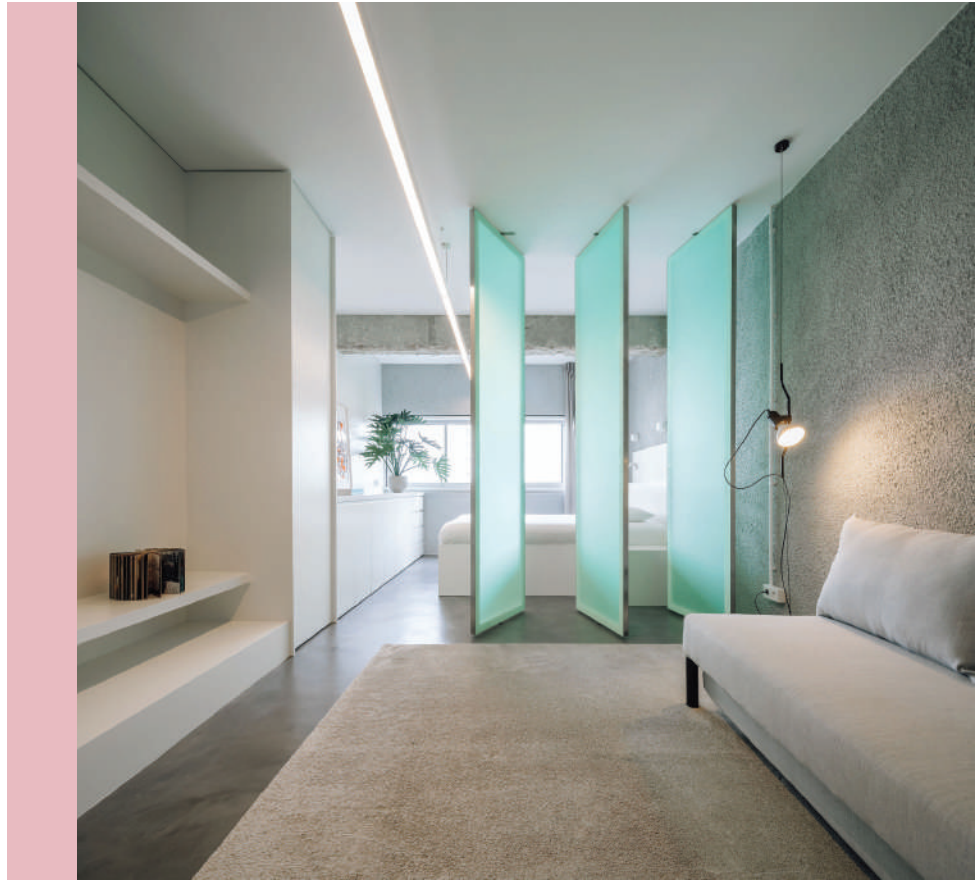
작은 공간은 개방적인 구조를 통해 답답함을 걷어내고 확장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령 혼자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구역이 나뉘지 않고 트여 있지만 하면 어수선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기 쉽다. 포르투갈의 EQUADOR 201은 협소한 공간을 영민하게 재구성한 프로젝트로 구역을 명확히 나누되 개방성과 폐쇄성을 적절히 조율해 안락하면서도 해방감이 느껴진다. 디자인은 길고 좁은 공간이 최대한 넓어 보이도록 욕실을 제외한 모든 벽을 철거해 내부를 통합한 뒤 영역을 단선적으로 배치해 구조를 정돈했다. 입구 겸 주방, 욕실, 거실, 침실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안쪽 벽 앞 공간을 복도처럼 비워 공간의 시작에서 끝까지 관통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특히 흐름이 시작되는 입구 쪽 벽에 전면 거울을 설치해 공간이 끝없이 뻗어 나가는 느낌을 부여하고, 천장에도 복도를 따라 직선형 조명을 설치해 연속성을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입구는 주방과 통합해 한정된 면적을 살뜰히 활용했으며 욕실 너머의 거실과 침실은 회전형 패널로 경계를 세워 유동적으로 공간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벽체를 철거하고 남은 천장의 콘크리트 보를 중심으로 오늘토돌한 질감이 살아있는 모르타르 벽, 회색 시멘트 바닥 등으로 인더스트리얼 이미지를 펼치는 한편 면을 매끈하게 가다듬은 흰색 가구를 병치해 상이한 느낌이 충돌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완성했다. ▣



회전형 문을 통해 유연하게 연결되는 거실과 침실.

*Focus on ROOM

공간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침실은 다른 영역과 통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 거실과 유연하게 연결했다. 벽체를 허문 자리에 회전형 패널을 세워 개폐를 자유롭게 조절하도록 한 것이다. 패널을 열면 침실과 거실이 통합돼 개방감이 느껴지고 패널을 닫으면 침실이 분리돼 휴식에 몰입할 수 있다. 패널은 세 개로 이루어져 개폐감을 좀 더 섬세히 조율할 수 있으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길쭉한 형태와 푸른색 반투명 소재가 어우러져 문을 닫아도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감각을 선사한다. 침실은 주거 전체의 디자인 테마를 이어가는데 간결한 선의 흰색 침대가 감각을 한층 차분히 가라앉힌다. 침대 헤드 보드는 선반 겸 협탁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계단식으로 구성해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다.





복도에 직선 조명을 설치해 집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헤드 보드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선반 역할을 부여한 침대.



거실과 동일한 디자인 콘셉트를 이어간 침실.



벽을 허물되 콘크리트 보를 남겨두어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를 살렸다.